

“초·중·고교생 심장검진 법으로 규정”

일본국 학생심장병 검진실태를 돌아보고



이 희 봉

오월의 맑고 푸른 희망의 꿈이 속삭이듯 녹음방송의 향기속에서 지역사회의 건강관리사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외국시찰의 기회가 주어졌다.

1991년 5월 13일부터 5월 18일까지 6일간 일본국 재단법인 예방의학사업중앙회의 초청으로 일본국 학생심장병 검진 실태시찰단의 일원으로 참석 동경도를 방문했다.

5월 14일 시찰단 일행 12명은 예방의학사업중앙회를 방문, 國井涉 사무국장으로 부터 제2차세계대전 패망국으로, 폐허와 각종 질병의 만연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질병퇴치사업을 전개해 결핵, 기생충, 성인병 검진을 위한 협회 설립의 동기와 오늘이 있기까지의 수난과 고충의 역사, 그리고 발전과정의 상황 설명을 들었다.

그 얘기를 들으며 우리나라의 광복과 6·25 전쟁과 기생충관리사업에서 비전염성 만성질환인 건강관리사업 전환의 동기가 일본국과 그 과정이 大同小異함을 느꼈다.

이로 인하여 수십년간 양국간의 인적 교류가 잘 진행되고, 서로 협력하여 국제사회의 건강관리사업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명감이 일치한다고 생각한다.

한편 우리 일행은 일본국의 학교 심장병 검진사업 관리의 현장을 견학했다.

검진을 담당하고 있는 동경도예방의학협회와 板木縣보건위생사업단의 검진시설과 운영 상황은, 동사업을 관리지도하는 동경도교육위원회를 방문, 보건행정지도 계획과 검진대상인 千代田區 관내 3개 학교의 검진현장의 진행과정을 견학하였다.

일본의 오랜 세월로 다져진 지방자치단체의 주도로, 학생건강검진사업의 실시는 법으로 규정 의무화되어 있다. 이를 통해 검진사업계획, 예산확보, 검진기관 지정이 三位一體의 체계로 관리되고 있었다.

교육위원회의 역할

일본은 교육목표를 인간의 정신을 바탕으

로 소신, 건강한 지성과 인간성이 풍부한 도민의 육성을 통해 사회발전 형성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는데 두고 있다.

또한, 변화에 대응하는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을 충실히 하여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고 근로와 책임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주성 및 창조성을 기반으로 하여 사회연대의식을 갖고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도민육성을 위한 평생학습과 건강관리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심장병관리의 시책 방향

성장기의 학생에 대한 정기건강진단, 특히 심장병검진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의 재정확보는 지방자치단체인 도청, 구청단위로 검진수수료를 예산에 편성하고 검진대상은 국교1년, 중학생1년, 고등학교1년생 전원으로 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심장병으로 인하여 급사하는 사고 예방과 이상소견자의 제2차검사와, 심장병과 운동과의 연관성의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검진기관을 지정 관리하고 있다.

심장병 검진기관의 역할

1. 검진기관인 동경도예방의학협회는 검진대상기관별 일정에 따라 현장순회검진을 실시한다. 국교, 중학교 학생의 심전도는 간략검사 심음도를 병행하고 고등학교 학생심전도는 12유도검사를 한다.

1차검사에서의 이상소견자는 2차검사를 협회 검사실에서 하는데 운동과 심장의 이상현상을 정밀검사한다. 3차검진은 자비로 검사하며, 대상자는 심전도나 심음도에 일단 의심이 있거나 심장질환이 명확치 않은 학생, 기타 소견이 있는 경우 이상소견자를 병원에 명확히 관리하는 체계를 이루고 있었다.



일본은 정기적 학생 심장 검진으로 돌연사를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 검진기관의 판정위원회 구성

심전도, 심음도의 이상소견의 판정을 정확히 하기 위하여 전문의료인을 구성, 최종이상소견을 판정하여 검사결과를 통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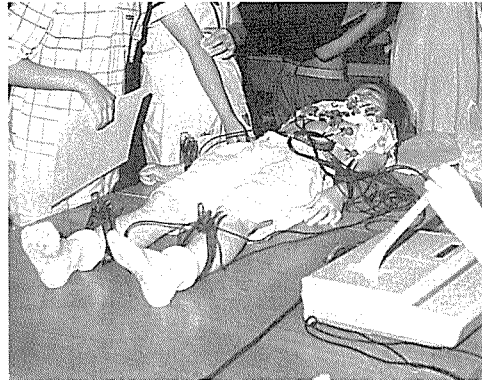
3. 사후 관리 지도

학생들에게 일상생활의 원칙에 따라 사소한 일까지도 본인이 그때 그때 상황을 건강기록부에 기록토록 한다.

성장기의 학생은 적당한 운동과 함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복합적 결과를 감안하고 있다. 이상소견 학생이 돌연사하는 병형(비만, 동맥경화, 심장비대, 류마티스성 등)에 대하여서는 운동을 엄중히 금지하고 이에 적응할 수 있는 문화면의 활용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심장병 학생에게 있어서 세균감염은 상태를 악화시키는 위험한 일이므로 충치, 편도선염, 중이염 등의 감염증세를 가볍게 치료할 수 있도록 각종 예방접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환경변화의 차가 심하므로 생활에 대한 특별한 배려와 효율적관리를 위하여 심장병관리 수첩을 배부, 일상생활에 활용토록 지도관리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체계적인 교육청의 계획과 재정부담이 검진기관으로 하여금 열과 성의로 봉사자세로 임하게 함으로써 하여 오늘의 예방의학협회가 날로 발전하고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도 학생심장검사를 비롯한 소아 성인병에 대한 정확한 방향 설정이 절실하다.

한국의 소아성인병의 향후

우리나라의 현재 학생건강관리를 위한 건강진단은 문교부의 보건관리지침에 의하여 각시도별 실정에 따라 일부검사만 진행되고 있는 것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이것을 확대하여, 금년도부터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지역발전과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서도 우선 보건법에 검사종목으로 기초검사(혈압, 신장, 체중), 요검사(요당, 요단백), 혈액검사(GOT의 7종), 심전도(이상 소견자 심음도), 비만도, 빈혈, 감염 등 항목을 규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검진에 소요되는 재정지원(검진수수료)을 담당하는 등, 비전염성만성질환(소아성인병) 관리에 대한 정확한 방향 설정이 성장기 어린이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본다. 72

〈필자=한국건강관리협회 경상북도지부 사무국장〉